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187>

JCCT 2022-7-24

청소년의 자존감과 노동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Labor Participation

박상진*

Sang-Jin Park*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이 노동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긍정)은 학교 밖 학생들이 가장 낮았고, 재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존감에 대한 성별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존감(긍정)과 자존감(합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과 노동참여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4%,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50.6%이었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경험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르바이트 의향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비율은 50.5%이고,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9.5%이었다. 따라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의향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이유와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68.1%이고,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31.9%이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75.2%이고,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24.8%이었다.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발적 동기가 높고, 비자발적 동기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 청소년, 자존감, 노동참여, 자발적 동기, 경제적 이유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 self-esteem and labor particip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it was analyz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self-esteem with ages, out of school students were the lowest. and self-esteem level increased with age. Second, when the differences in self-esteem levels between genders were examined, male students showed slightly higher positive self-esteem and total self-esteem, which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labor participation is as follows: 50.4% of students experienced part-time jobs in low self-esteem group. And 50.6% of students experienced part-time jobs in high self-esteem group. It shows that self-esteem level doesn't have relation to part-time job experience. Fourth, when the correlation between part-time job intention and self-esteem was analyzed, 50.5% of students in low self-esteem group responded they would have part-time job, but 49.5% of students in high self-esteem group. Also, 50.9% of low self-esteem group students responded they had no intention of getting part-time jobs, but 49.1% in high self-esteem group. It shows self-esteem level doesn't influence the decision to get part-time jobs. Las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son they get part-time jobs and self-esteem level was analyzed. 68.1% of students in low self-esteem group had part-time jobs voluntarily, while 31.9% had to have jobs involuntarily for economic cause. Also 75.2% of students in high self-esteem group had part-time jobs for voluntary motive and 24.8% for economic cause. So high self-esteem group showed more voluntary cause and low involuntary cause for part-time job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Key words : Juveniles, Part-time job, Labor rights, Unfair treatment, Countermeasure

*정회원,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8일

Received: May 30, 2022 / Revised: June 25, 2022
Accepted: Jul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parksj@kduniv.ac.kr
Dept. of Social Welfare, KyungDong Univ, Korea

I. 서론

본 연구는 지방 소도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이 노동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존감은 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의 줄임말이다. 즉,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따라서 자존감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함께 사회활동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의 노동참여는 노동참여의 동기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동기와 함께 자발적 동기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의 실질적 상태를 학년별, 성별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자존감과 노동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자존감의 이해

청소년에게서 자존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이 있는 청소년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에 있어서 자존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낌이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자존감을 갖는 첫 단추이다.[1]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하였다.[2]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Maslow)는 욕구단계설(hierarchy of human needs)에서 자존감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존중감(esteem)을 묘사하였다. 인정(recognition), 성공, 칭찬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존중(respect)을 바라는 욕구, 그리고 자기애(self-love), 자신감(self-confidence), 기술(skill), 소질/aptitude)이라는 형태의 자기존중(self-respect)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3]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은 내적 자존감보다 더 취약하고 더 쉽게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슬로에 의하면, 자존감을 바라는 욕구의 충족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구하려는 원동력이 생기지만,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개발하고 성취할 수 없다. 또한 매슬로는 가장 건강한

자존감의 표현은 유명(renown), 명성(fame), 아부(flattery) 이상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존중감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 자존감에 관한 현대 이론들은 자기자신에 대한 높은 존중감을 유지하도록 인간이 동기부여되는 이유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성 계량기 이론(sociometer theory)은 자존감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지위 및 수용 정도를 체크하도록 진화하였다는 것을 주장한다.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에 따르면, 자존감은 방어적 기능(protective function)을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anxiety)을 줄여준다.[4] 또한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의 대가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은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이론화하였다. 때문에 로저스는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 수용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판단했으며, 이것이 진행되면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5] 청소년의 자원봉사과 자존감에 관한 이향승(2019)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과잉성취형 청소년들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긍정정서와 이타성의 집단 크기는 집단의 자기결정성 순서와 같게 나타났고, 자존감은 과잉성취형만 제외하고는 자기결정성과 같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긍정정서와 이타성, 그리고 자존감과 관련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존감의 경우는 자기결정성이 평균 정도 상태에서 자존감과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2. 청소년 노동참여에 관한 고찰

청소년 노동참여에 관한 최신 연구인 정송화, 이경은, 강동여 (2020)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기효능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521명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첫째, 부당대우를 근절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둘째, 고용주의 멘토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 셋째,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넷째, 미래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방안 등을 제안

하였다.[7] 또한, 김재엽, 장대연(201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확인하고 아르바이트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6.1%로 나타났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은 음주빈도에, 음주빈도는 공격성에, 공격성은 학교부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르바이트경험은 학교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아르바이트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음주빈도와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노동인권교육단체의 양성,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추진과 같은 제도적 보완,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을 제안했다.(권일남, 전명순 2020)[9], 또한 지역 고교생의 노동실태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노동의 부당노동에 대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박상진,2021)[10].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와 학업 성적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중에 아주 긴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업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홍철, 이성재 2022)[11]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존감과 노동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강원도 S시에 소재한 고교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실시하였으나 회수 결과 연구에 포함할 수 없는 설문을 제외하고 본 조사대상에 포함된 청소년은 534명이며 조사항목에 따라 미응답한 경우에는 그 문항에서만 제외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시 청소년 자존감과 노동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존감(긍정), 자존감(부정), 아르바이트 경험,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존감과 노동참여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 대하여 문항별 빈도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존감에 관한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소재 한 학생들의 자존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자존감에 대해서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존감(긍정)은 학교 밖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치인 17.37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고1학생들 17.86, 고2학생들 18.17, 그리고 고3 학생들이 18.9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자존감(긍정)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들보다 높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존감(부정)은 학교밖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는 고2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합계)에서는 자존감(긍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 자존감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self-esteem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자존감 (긍정)	고1	161	17.86	4.25
	고2	165	18.17	3.87
	고3	150	18.99	4.09
	학교 밖	58	17.37	3.75
	합계	534	18.22	4.06
자존감 (부정)	고1	161	13.80	4.06
	고2	165	14.01	3.42
	고3	150	13.24	3.70
	학교 밖	58	14.91	3.10
	합계	534	13.87	3.69
자존감 (합계)	고1	161	28.96	6.33
	고2	165	29.15	6.20
	고3	150	30.74	6.04
	학교 밖	58	27.46	5.90
	합계	534	29.36	6.23

학년별로 자존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존감(긍정)과 자존감(부정) 그리고 자존감(합계) 모두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자존감 점수는 학년이 높을수록 높고,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자존감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Table 2. one-way Anova of self-esteem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자존감 (긍정)	집단-간	150.770	3	50.257	3.078	.027
	집단-내	8652.812	530	16.326		
	합계	8803.582	533			
자존감 (부정)	집단-간	125.038	3	41.679	3.087	.027
	집단-내	7156.146	530	13.502		
	합계	7281.184	533			
자존감 (합계)	집단-간	525.641	3	175.214	4.604	.003
	집단-내	20168.683	530	38.054		
	합계	20694.324	533			

자존감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 자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존감(긍정)과 자존감(합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존감에 대한 성별 집단통계량
Table 3. gender group statistics on self-esteem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p
자존감 (긍정)	남자	267	18.7790	4.08	3.122	.002
	여자	265	17.6868	3.99		
자존감 (부정)	남자	267	13.7715	3.66	-.465	.642
	여자	265	13.9208	3.74		
자존감 (합계)	남자	267	30.0075	6.39	2.307	.021
	여자	265	28.7660	6.02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4%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9.6%이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이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경험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존감 * 아르바이트 경험 교차표
Table 4. cross table on self-esteem vs. part-time job experience

구분		아르바이트 경험		전체
		있다	없다	
자존감 (저)	빈도	130	128	258
	자존감 중 %	50.4%	49.6%	100.0%
자존감 (고)	빈도	132	129	261
	자존감 중 %	50.6%	49.4%	100.0%
총계	빈도	262	257	519
	자존감 중 %	50.5%	49.5%	100.0%

아르바이트 의향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의향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르바이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비율은 50.5%이고,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9.5%이었다. 또한 아르바이트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비율은 50.9%이고,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9.1%이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의향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존감 * 앞으로 아르바이트 의향 교차표
Table 5. cross table on self-esteem vs. future part-time job intention

구분			앞으로 아르바이트 의향		전체
			있다	없다	
자존감 (저)	빈도	앞으로 아르바이트 의향 중 %	238	28	266
			50.5%	50.9%	50.6%
자존감 (고)	빈도	앞으로 아르바이트 의향 중 %	233	27	260
			49.5%	49.1%	49.4%
총계	빈도	앞으로 아르바이트 의향 중 %	471	55	526
			100.0%	100.0%	100.0%

아르바이트 이유와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이유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인 경우가 68.1%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 인 경우가 31.9%이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 인 경우가 75.2%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 인 경우가 24.8%이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발적 동기가 높고, 비자발적 동기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자존감 * 아르바이트 이유 교차표
 Table 6. cross table on self-esteem v. reason of part-time job

구분		아르바이트 이유		전체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	
자 존 감 (저)	빈도	171	80	251
	자존감 중 %	68.1%	31.9%	100%
자 존 감 (고)	빈도	185	61	246
	자존감 중 %	75.2%	24.8%	100%
전체	빈도	356	141	497
	자존감 중 %	71.6%	28.4%	100%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소재 한 고교생들의 노동참여 활동이 자존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설문 대상자들의 자존감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존감(긍정)은 학교 밖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치인 17.37로 나타났고, 고1학생들 17.86, 고2학생들 18.17, 고3 학생들이 18.99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 자존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자존감(긍정)과 자존감(부정) 그리고 자존감(합계) 모두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자존감 점수는 학년이 높을수록 높고,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존감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존감(긍정)과 자존감(합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존감과 노동참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의해 구분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4%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9.6%이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이었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경험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의향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의향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르바이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비율은 50.5%이고,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9.5%이었다. 또한 아르바이트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비율은 50.9%이고,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49.1%이었다. 따라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아르바이트 의향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이유와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이유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 인 경우가 68.1%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 인 경우가 31.9%이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동기 인 경우가 75.2%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비자발적 동기 인 경우가 24.8%이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발적 동기가 높고, 비자발적 동기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이 지방의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노동참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존감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자신이 인식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한 인간의 생애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 참여는 성인이 되어서 살아야 할 인생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현안인 입시가 우선이라는 제한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은 상당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에 대한 학년별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차이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의향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자발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존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 사회 참여 활동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사회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은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경험과 훈련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엔데믹시대를 맞이하여서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를 통한 공동체 훈련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시기가 되기 이전에 사회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경쟁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학업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노동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1] S. A. Nam(2011) The Happy Power of Self-esteem: Self-esteem Differs from Pride or a Sense of Superiority, Soulmate, ISBN9788960602113

[2] D. H. Yoon(2011) If you Suffer From Low Self-esteem, Lower your Criterion and Stop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The Korea Economic

Daily, June 3rd.

[3] A. H. Maslow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Thi판. New York: Harper & Row. ISBN 978-006 0419875.

[4] Greenberg, J. (2008). “Understanding the vital human quest for self-esteem”.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 48 - 55. doi:10.1111 /j.1745-6916.2008.00061.

[5] José-Vicente Bonet. Sé amigo de ti mismo: manual de autoestima. 1997. Ed. Sal Terrae. Maliaño (Cantabria, España). ISBN 978-8429311334.

[6] H. Si Lee (2019) The relation of adolescent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altruism, positive emotion and self-esteem. Dept of Counseling, MA. Seoul School of Integrated Techonologies & Sciences.

[7] S. H. Jung, K.E. Lee, & D. Y. Kang(2020) Out-of-school youth' part-time work experience and career maturity: Focus on the ediators of efficiency. Korea Child Welfare Academy Vol. 69 권 No.3 2020. 0989 - 111 (23 pages) DOI : 10.24300/jkscw.2020.9.69.3.89

[8] J. Y. Kim(2018) The Effect of Part-time Job Experience on School Maladjustment: Double Mediation Effect of Alcohol Drinking and Aggression on Adolescents. Korea School Welfare Society Vol. 41, pp. 1-27.

[9] I. N. Kwon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Labor Human Rights for Youth and Their Solutions.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Vol. 06, No. 02. pp. 53-79.

[10]S. J Park(2021)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and Labor Rights Consciousn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264-271, Feb 2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11]H. C. Chae, S. J. Lee(202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Academic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10 No. 1 / pp.81-96 / 2288-7202(pISSN) / 2288-7318(eISSN)

※ 이 논문은 2021년도 경동대학교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